



##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경로과의 관계

### ◎ 정희영(총신대 교수)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을 위한 세계관 교재 개발을 위해 Understanding the Times라는 책을 편역하기로 했다. 이 책은 철학, 신학, 역사학, 심리학, 경제학, 사회학, 생물학, 정치학, 법학 등의 학문을 기독교, 마르크시즘, 이슬람, 뉴에이지,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다. 1990년도에 처음 출간되어 몇 번의 개정판이 나왔다. 내용이 고등학생들에게는 어렵고 또 미국인을 위해 쓰인 책이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다시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내용의 구성을 새롭게 작성하기로 연구진들과 협의하였다. 연구진들은 청소년 세계관 전문가인 CTC의 대표 유경상, 명지외고의 역사 교사이며 목사인 강효식(Ph.D.), 총

신대 역사교육과교수 권태경, 전 두레고등학교 교장 문태순 등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청소년의 기독교 세계관 교재 개발은 2010년 8월 30일에 첫 모임을 시작하여 여러 번의 모임을 통해 각 장의 내용 및 형식의 구성, 용어의 통일 등을 논의하였고 이상의 것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이상의 것이 완료되었다. 현재는 내용을 고등학생들에게 맞게 더 쉽고 명료하게 작업하는 일이 남았으며 8월 중에 속초의 라브리에서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 전반적인 것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교재개발에 앞서 우리나라 기독교 고등학생들의 세계관

이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와 세례 유·무와 신앙경로과의 관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총신대의 권태경 교수와 함께했다.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현주소를 파악함으로써 고등학생들을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했다. 또 이를 근거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 문제는 첫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은 어떠한가? 둘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경로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등이다.

연구 도구는 설문지로서 5명의 학자의 기독교 세계관의 기본 틀을 비교 분석한 것에 근거해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6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2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대상자는 805명이며 자료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 그리고 one-way ANOVA로 통계처리 했다. 빈도분석은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창조의 시작과 의미, 인간의 본질, 인간의 사망 시에 일어나는 일, 인간 역사의 의미, 도덕의 기초,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분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례의 유·무에 따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t-test가 시행되었고, 신앙연수와 기독교 세계관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가 시행되었다.

### 1.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실태

첫째, 창조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회교육에서 창조에 대한 부분이 잘 교육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의 계속성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긍정적인 결과가 떨어졌다.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침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신론적 사고를 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에 직접 개입하신다는 의식을 못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과학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는 방법이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학문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견해를 낳게 된다. 따라서 창조의 계속성에 대한 교육이 보강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인간의 본질에 대한 실태에서는 인간의 기원에 대해 80% 정도



가 잘 알고 있었으나 20% 정도의 학생들이 그 기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초등학교부터 진화론에 근거를 둔 교육과정 에 의해 교육을 받다 보니 교회에서 창조론 에 대해 배웠음에도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 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간의 사망 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 가운데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는 삼 분의 일이 넘는 응답자가 원죄 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 기독교인에 게 있어서 원죄에 대한 이해는 구원의 핵심 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 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나라 교회교육에 문 제가 있거나 교육에서 죄의 문제를 가법게 취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넷째, 도덕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응답이 여러 항목에서 대부분 받을 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덕의 기초가 절대성 보다는 상대성에 근거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주의를 지향하고 절대성을 부정하는 오늘날 사회의 풍조인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의 특성상 미디어의 영향을 받고 그 미디어가 대중문화를 포함하며, 대중문화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인간 역사의 의미에 대한 실태에서 아담의 실재성 부분에서 응답자의 26%가 부정적으로 답을 했는데, 이는 믿음과 머리로 아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며 인간의 사회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인본주의의 뿌리에 깔린 진화론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교회에서 성경에 대해 배우기는 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은 다른 일이며 이들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대체로 진화론적 사고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삶에서 신앙의 표현에 대한 실태 가운데 구체적으로 기도도의 응답이 있는지, 예배 시에 성령의 동행을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5% 내외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교회교육특히 장로교)이 교리에 치중하는 한편, 삶에서의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 결과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 2.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세례 유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례 유·무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섯 항목 가운데 한 항목에서만 세례를 받은 집단과 세례를 받지 않은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례를 베풀기 전 세례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을 고려할 때 세례를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은 세례 전 베풀어지는 교육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유아세례자가 75%나 되었다.

세례를 전후로 한 교육적 중요성은 교회 역사에서 세례 예미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엿볼 수 있다. 2세기 초엽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세례예미자를 위한 교리문답 교육학 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종교 개혁기에는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 교리문답서가 작성되었고 칼빈의 제네바 교리문답이나 웨스트민스터 등의 수많은 교리문답이 어린이의 신앙교육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는 세례의 중요성과 유아세례와 그 후의 신앙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자녀 받지 않은 자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분명 세례 베풀기 전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유아세례 시 이루어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적 책임에 대한 서학과 교회의 교육적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교회가 언어의 공동체이며 언어사상과 맥을 같이 하는 세례와 이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긴과

된 결과라 하겠다.

## 3.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과 신앙경력의 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신앙경력에 따라 우리나라 교회 고등학생들의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여섯 항목 가운데 한 항목에서만 신앙경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5개의 다른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앙경력에 따라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에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신앙경력이 기독교 세계관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졌더라도 일반 사회에서 받는 교육을 능가하지 못하거나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오히려 교회에서의 교육보다 더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리에 치우친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 실천적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교회에서의 교육보다는 일반 사회나 학교 교육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진화론과 포스트모던 사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한 교육이 요구된다. 교회 교육과정 중 진화론과 창조론의 비교 연구,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과 기독교인의 삶과 같은 내용을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세례 전 교육이 강화되고 그 내용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교회가 유아세례를 베풀 때 부모와의 서약이 당시의 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자신들에



정희영 총신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기독교학문연구회 학회장이며 한국유아교육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기독교 유아교육론', '기독교세계관으로 본 근현대 교육사상' 외 다수가 있다.



게 자녀의 신앙에 대한 교육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실제 생활에서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한다. 5월 가정의 달에만 행사로 이루어지는 부모교육이 아니라 교회교육의 핵심에 부모교육프로그램을 계획,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교회에서의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일반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와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의 여러 가지 요인이 교회교육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교회교육의 시간이나 내용, 방법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